

우크라이나 위기 전쟁 직전서 ‘브레이크’

접경지 훈련 러시아군 일부 복귀
푸틴 “외교적 해결 위해 노력”
서방 “침공 위험 여전히 위협적”
바이든 “검증되지는 않았다” 견제

전쟁 직전까지 치달았던 우크라이나 위기가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러시아가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접경지에서 훈련 종료로 일부 병력을 복귀시키고 서방과 대화를 이어갈 뜻을 밝히면서다. 이남은 미국이 ‘침공 예상일’로 지목한 16일이 하루 남은 시점이다.

하지만 미국 등 서방은 아직 유의미한 규모의 병력 철수는 관측되지 않았고 러시아가 언제든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5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일부 병력 철수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유럽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안전보장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기갑부대라면서 ‘인증 동영상’을 공개했다.

러시아군의 복귀 발표 직전만 해도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둘러싸고 군 병력을 집결하자 미국과 영국 등은 자국민에게 우크라이나 철수를 권고했고 대사관을 수도 키예프에서 서부도시 리비우로 옮기기도 했다.

서방 지도자들은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면서 러시아 침공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하지만 러시아는 오히려 보란 듯 서방이 설정한 침공일 D-1일에 병력의 일부 철수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앞서 러시아는 언제든 병력을 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왔다. 그동안 서구의 계속된 의심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계획이 없고, 국경에 병력을 집결한 것도 자체 군사훈련일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에 병력을 철수한 것도 예정된 훈련이 끝났기에 원주둔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방 언론이 제기하는 우크라이나 침공설은 ‘정보 테러’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병력 복귀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고 경계한다. 뉴욕타임스(NYT)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번에 복귀한 군대는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러시아 서부·남부지역 군대로, 언제든 쉽게 국경지대로 재투입될 수 있다”라며 “러시아군이 병력은 빼면서도 무기는 그대로 배치해 상황에 따라 신속히 국경지대에서 재무장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군의 일부 병력이 복귀했지만 여전히 접경지역에 충분한 병력이 남아 있어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프로 진격하거나 크림반도를 통해 침공할 수 있다고 NYT는 전망했다.

실제 우크라이나 위기설이 제기된 이후 러시아군의 일부 병력 철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

년 12월 25일에도 러시아군은 국경 인근 1만여명의 병력을 원부대로 복귀시킨다고 발표했 적이었다. 당시에도 복귀 이유는 훈련이 끝났다는 것이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서방 지도자들은 이를 의심한 듯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군사적 긴장 완화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군 일부 병력이 복귀 중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이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고, 우크라이나 군사 분쟁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면서 “러시아군은 여전히 위협적이고 15만 병력이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국경 인근에서 우크라이나를 포위하고 있다”며 “침공은 명백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러시아가 대화하겠다고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고무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15일(현지시간) 시리아 인근 동지중해 해상에서 러시아 소해정(기뢰 제거함) 블라디미르 예멜야노프호가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흑해로 가는 길목인 동지중해에서는 러시아군이 전함 15척과 30여 대의 항공기를 동원해 대규모 해상 훈련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뉴질랜드 의사당 앞 9일째 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 16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의 의사당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반대 시위대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시위대는 의사당 주변에 텐트를 치고 트럭 등 차량으로 도로를 막은 채 9일째 시위와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빚장 푸는 네덜란드…“새로운 국면”

영업시간 연장·거리두기 해제

네덜란드가 18일부터 코로나19 통제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오미كرون 확진자가 기록적으로 늘고 있지만 대부분 경증이라 입원 환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에른스트 카위퍼스 네덜란드 보건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라가 다시 열릴 것”이라며 “기쁘게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밤 10시까지로 돼 있는 술집과 음식점 영업시간이 18일부터 새벽 1시까지 연장

된다. 카위퍼스 장관은 상황을 낙관하고는 있지만 조심해야 한다면서, 통상적인 영업 종료 시각은 25일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는 지금 막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상황이라 조심해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은 의무는 아니지만 계속 쓰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공공장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날 말을 기해 전면 해제되지만, 방문자들은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회복, 음성 판정 등을 증명해야 한다. 한편 다른 유럽 국가들도 조금씩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16일부터 나이 트클럽이 다시 문을 연다. /연합뉴스

탈레반 “11만 정규군 곧 창설…필요시 증원”

아프가니스탄 재집권 6개월 만에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재집권 6개월 만에 11만명 규모의 정규군을 창설한다.

16일(현지시간) 아리어나뉴스 등 아프간 언론에 따르면 몰라 모하마드 야쿠브 무자히드 아프간 국방부 장관 대행은 지난 15일 국영 TV RTA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무자히드 대행은 우선 11만명으로 구성된 정규군을 출범시킬 예정이며 필요하면 증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권 후 1만여명을 훈련시켰고 8만명 이상이 정규군에 등록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 정부군의 군경 수보다는 적다.

옛 정부군의 규모는 경찰 등을 포함해 30만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장부상에만 오른 허수라 실제 병력은 알려진 수보다 적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탈레반의 핵심 조직원 수는 10만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탈레반 정부는 이들 중 복무 가능한 병력을 추리고 신병을 추가해 정규군을 편성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 정부 붕괴 후 의사, 관료, 통역사, 학자 등 전문 인력이 대거 해외로 빠져 나가면서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탈레반 정부는 군

부문에서도 기술자 등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자히드 대행은 “전 정부가 해외에 보낸 군 연수생은 모두 돌아와 모국 개발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탈레반 집권 후 각종 테러를 일삼고 있는 극단주의 조직 이슬람국가 호라산(IS-K)에 대해서는 아프간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무자히드 대행은 “우리는 국제사회에 아프간 영토가 다른 이의 공격에 사용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세계 각국이 이에 헌신한다면 우리도 약속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탈레반은 지난해 8월 아프간을 장악한 후 9월부터 정규군 창설을 추진해왔다.

이후 남부 칸다하르와 카불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열고 군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특히 카불 군사 퍼레이드에서는 미국산 M117 장갑차 수십 대가 행진하는 가운데 MI-17 헬기가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탈레반은 미군이 철군하고 아프간 전 정부군이 무너지면서 남긴 많은 무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앤드루 왕자 ‘성폭행 합의금’ 195억원…여왕도 보탬 듯”

영국 텔레그래프 보도

“증인신문 다가오자 합의”

미성년자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영국 앤드루 왕자(61)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가운데, 피해자 측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195억원을 넘긴다는 영국 신문의 보도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일간 텔레그래프는 자체 취재 끝에 앤드루 왕자가 피해자 버지니아 주프레에 대한 합의금과 피해자측 자선단체에 내기로 한 금액 합이 1200만파운드(약 195억원)를 초과한다고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이같이 파악한 경우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양측은 공동성명을 내고 민사소송 개시 전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지만, 합의금 액수는 밝히지 않아 여러 추측이 오가고 있다.

앞서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왕실 소식통을 인용해 앤드루 왕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750만파운드(약 122억원) 정도라고 보도했었다.

일간 가디언은 “해당 금액이 750만파운드라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도 있지만, 범조계는 1000만파운드(약 162억원)를 초과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텔레그래프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랭커스터 영지에서 거둔 수입을 토대로 아들 앤드루 왕자에 자금을 보탬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앤드루 왕자의 추문과 사법 절차로 인해 올해 여왕 즉위 70주년(플래티넘 주빌리)으로 경사를 맞은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양측이 최소 10일 간 협상한 결과물로, 지난 12-13일에 이뤄졌다.

미국 사법절차상 앤드루 왕자가 상대 측 대리인에게서 신문을 받게 되는 날이 오는 3월 10일로 잡히자, 앤드루 왕자 측에서 전락을 바꾸고 합의를 시도한 것이라고 텔레그래프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